



미국 목회자, '지난 1년 내 전임 사역 그만둘 생각한 적 있다' 42%

- ▶ 미국 바나그룹의 최근 목회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지난 1년 내 전임 사역을 그만둘 것을 고려한 목회자의 비율은 42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2021년 1월 조사 대비 13%p나 증가한 수치다.

[그림] 전임 사역 사임 고려한 적 있다 (미국 목회자 대상, '그렇다' 응답률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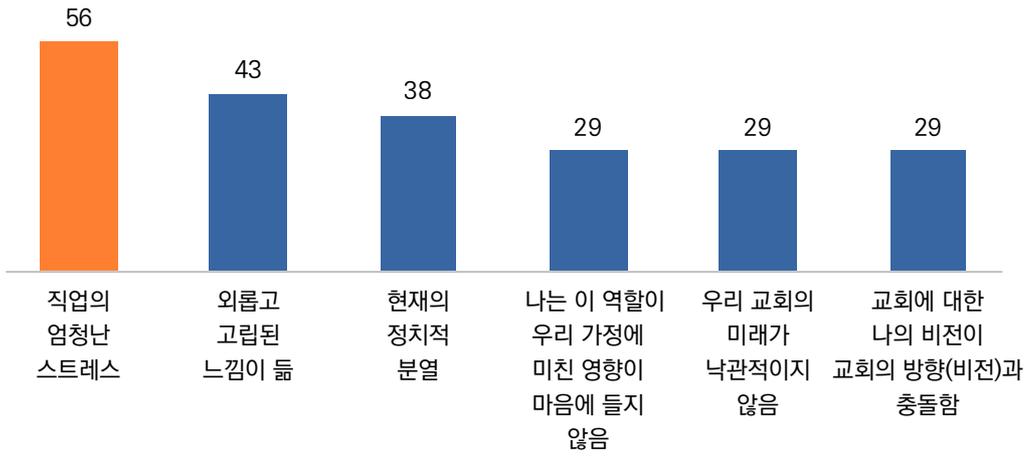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Barna Group(바나그룹), 2021년 1월 목회자 조사, 2021.01(미국 개신교 담임목사 413명, 온라인 조사, 2021.01.22.~27), Barna Group(바나그룹), 2022년 3월 목회자 조사, 2022.03(미국 개신교 담임목사 510명, 온라인 조사, 2022.03.10.~16)

◎ 미국 목회자의 전임 사역을 그만 두려는 이유, 절반 이상(56%)이 '직업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낀다'

- ▶ 사역을 그만둘 것을 고려한 이유로 목회자의 절반 이상(56%)은 '직업의 엄청난 스트레스'를 들었다. 다음으로 목회자의 43%는 '외롭고 고립된 느낌'을, 38%는 '현재의 정치적 분열'을 전임 사역에서 물러나는 것을 고려한 이유로 꼽았다.

[그림] 전임 사역을 그만둘 것을 고려한 이유 (상위 6위, 복수응답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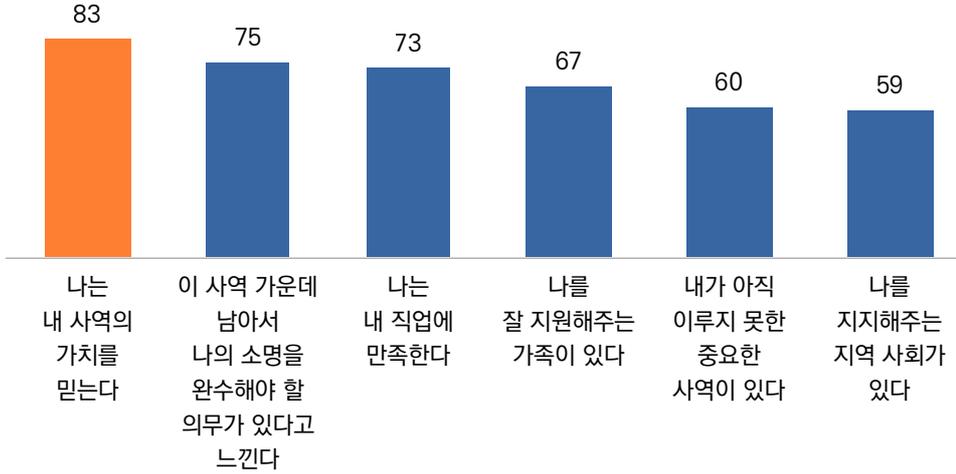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Barna Group(바나그룹), 2022년 3월 목회자 조사, 2022.03(미국 개신교 담임목사 510명, 온라인 조사, 2022.03.10.~16)

◎ 미국 목회자의 전임 사역을 그만두지 않으려는 이유, 5명 중 4명 이상(83%) '자신의 사역 가치 믿는다'

- ▶ 전임 사역 사임을 고려하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. 응답자 5명 중 4명 이상(83%)이 '나는 내 사역의 가치를 믿는다'를 꼽았다. 다음으로 '사역에 남아 자신의 소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고'(75%), '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'(73%)는 응답률도 70% 이상을 선회하며 높게 나타났다.

[그림] 전임 사역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
(전임 사역 사임을 고려하지 않은 목회자, 상위 6위, 복수응답, %)



*자료 출처 : Barna Group(바나그룹), 2022년 3월 목회자 조사, 2022.03(미국 개신교 담임목사 510명, 온라인 조사, 2022.03.10.~16)